

RPG부터 융합 장르까지... 다양한 신작들 쏟아진다

‘위기론’ 등장한 지난해와는 달라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반전 주도 NHN·컴투스 등 다양한 플랫폼 공략

2020년을 시작하면서 게임업계가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주요 게임사는 올해 모바일부터 PC,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역할 수행게임(RPG)과 전략시뮬레이션, 융합 장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작 게임이 드물어 한국 게임산업 위기론까지 나왔던 지난해 초와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우선 ‘3N’으로 불리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의 대형 게임사들이 신년 초부터 신작 게임과 대규모 업데이트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매각 이슈에 시달렸던 넥슨은 연말 흥행한 ‘V4’의 성과를 이룰 게임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넥슨의 2020년을 이끌 첫 게임은 모바일 RPG ‘카운터사이드’. 현실 세계의 반대편인 카운터사이드의 전투를 그린 어반 판타지로, 현재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 14일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정확한 론칭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최종 비공개 테스트를 마친 신작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바람의나라: 연’의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그 밖에 인기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마비노기’의 지적 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게임도 개발 중이다.

넷마블도 신작 모바일 게임을 내놓는다. 먼저 ‘A3: 스틸얼라이브’를 1분기 내 출시할 예정이다. 22일 미디어 간담회를 갖고 콘텐츠와 서비스 일정을 발표한다. 이 게임은 2002년 출시해 인기를 끈 PC 온라인 RPG ‘A3’의 IP를 모바일로 재해석했다. 배틀로얄과 MMORPG 장르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카드게임(TCG) 장르의 원조 격인 ‘매직: 더 개더링’의 IP를 이용한 모바일 실시간 전략대전기 ‘매직: 마나스트라이크’도 1분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원작의 카드와 세계관을 고품질 3D 그래픽으로 재현했고, 세계 이용자들이 경쟁할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2020년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신작 게임을 선보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새해벽두를 달굴 넥슨의 모바일 RPG ‘카운터사이드’, 넷마블의 모바일 배틀로얄 MMO RPG ‘A3: 스틸얼라이브’, 펠어비스의 PC 온라인 배틀로얄 게임 ‘새도우 아레나’ (위부터) 사진제공 | 넥슨·넷마블·펠어비스

수 있는 게임 모드를 제공한다. 넷마블은 인기 모바일 게임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 ‘세븐나이츠 레볼루션’과 애니메이션풍 MMORPG ‘제2의 나라’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군 ‘리니지2M’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신규 영지와 던전, 보스, 무기 등을 포함한 ‘상아탑의 현자들’을 22일 업데이트한다. 9일 사전등록을 시작했다. 또 다른 인기 IP ‘블레이드앤소울’과 ‘아이온’을 기반으로 한 신작도 제

작 중이다. ●NHN, 펠어비스 등...IP 활용 신작 풍성 중견기업들도 신작으로 2020년 포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NHN은 모바일 일인칭슈팅(FPS) 장르를 공략한다. 누적 다운로드 5000만 건 이상의 글로벌 흥행작 ‘크리틱컬옵스’를 아시아 시장에 맞춰 재해석한 ‘크리틱컬옵스: 리모디드’를 상반기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인기 만화 ‘용비용팔’ IP를 활용한 모바일 횡스크롤 RPG ‘용비

용팔M’도 연내 서비스할 예정이다.

펠어비스는 PC 및 콘솔 게임을 선보인다. 먼저 상반기 중 ‘새도우 아레나’를 서비스한다. 인기 게임 ‘검은사막’의 ‘그림자 전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액션 배틀로얄 게임이다. 지난해 지스타에서 시연 버전을 공개해 게이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초 2차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했다. 펠어비스는 슈팅 게임 ‘플랜8’과 수집형 MMORPG ‘도깨비’, 검은사막을 잇는 ‘붉은사막’ 등도 개발하고 있다.

컴투스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서머너즈 워’ IP 기반의 신작을 준비했다. 원작 이전 시점인 100년 전쟁을 배경으로 전략성과 전투 콘텐츠를 강조한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을 상반기에 공개한다. 100년 전쟁의 한 시점을 다룬 ‘서머너즈 워 MMORPG’도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대표작 ‘미르의전설2’ IP 기반 신작 타이틀을 준비하고 있다. 원작 시리즈를 잇는 ‘미르4’와 모바일로 재해석한 ‘미르M’, 전략으로 장르를 확장한 ‘미르W’다.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는 블루머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위드 히어로즈’ 사전 예약을 최근 시작했다. 이순신과 나폴레옹, 베토벤, 제우스 등 세계 역사와 신화 속의 유명 캐릭터가 등장하는 캐주얼 PRG다.

웹젠은 웹게임 ‘뮤 이그니션’의 후속편 ‘뮤 이그니션2’ 서비스를 1분기에 시작한다. 최근 공식 티저사이트를 열고 게임 정보도 공개했다. 2019년 중국에서 서비스해 2000개 서버를 오픈할만큼 인기를 끈 ‘암흑대천사’의 한국버전이다.

지난해 말 내놓은 모바일 RPG ‘엑소스 히어로즈’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라인게임즈는 올해 ‘베리드 스타즈’를 포함해 PC와 콘솔,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크래프톤의 MMORPG ‘에어’는 PC 플랫폼에서 관심을 끄는 게임이다.

네시삼십삼분은 ‘복싱스타’를 잇는 ‘볼링스타’ 등 스포츠 및 서브컬처 장르 모바일 게임 6종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9일

코스피지수	2186.45	▲	+35.14
코스닥지수	666.09	▲	+25.15
日 넷케이 지수	2만3739.87	▲	+535.11
中 상하이 종합	3094.88	▲	+27.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36	▲	+0.03
환율 (원·달러)	1160.50	▼	-8.50
국내금값 (원/그램)	5만7672.55	▼	-1778.87

경제현장.jpg



“고품질 아기용 물티슈 사세요” 홈플러스는 9일 PB(자체브랜드) ‘시그니처 베이비 물티슈’를 선보였다. 부드럽고 도톰한 아기용 물티슈로 촉감을 개선하고 피부자극을 최소화했다. 고품질, 합리적 가격, 제조사 직거래, 위생 및 안정성 등이 특징이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홈플러스

경제 단신

스마일게이트, 중국에 테마파크 오픈

스마일게이트는 중국 쑤저우의 쇼핑몰 쑤저우 센터에 ‘크로스파이어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호점을 오픈했다. 중국서 인기를 모은 일인칭슈팅(FPS)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활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1호점은 레이저 슈팅과 과녁 사격장을 갖추고 있으며, 카페 등의 편의시설도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난퉁과 항저우에도 크로스파이어 테마파크 개관을 확정했고, 연내에 중국 주요 도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5호점까지 늘릴 계획이다.

‘페이코 청구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NHN페이코의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페이코 청구서’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페이코 청구서는 전국 지방세 및 세외수입, 도시가스요금, 카드청구서 등 각종 고지서를 ‘페이코’ 앱 내에서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페이코 청구서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방세 납세 편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영민 기자

한국타이어, 유럽시장 공략 고삐 조인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법인 설립 유럽서 전략적 확장 기반 강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베하르트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유럽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한국타이어는 유럽시장에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시장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독일, 영국, 프랑스, 헝가

리,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 유럽 전역에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새 법인 설립으로 유럽에서 전략적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6위에 올라 있다. 전세계적으로 8개의 생산시설(한국,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5개의 R&D 센터(한국, 중국, 미국, 독일, 일본)를 통해 180여 나라에 타이어를 판매하며, 매출의 85%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롯데월드, 소아암 어린이에 치료비 기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매년 어린이병원서 공연도 진행

롯데월드(대표 최홍훈)가 훈훈한 이웃사랑 행보로 2020년을 시작했다. 롯데월드는 지난해 가장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1989년 동전우대’ 행사 기부금과 전 임직원 참여 ‘드림업 기부데이’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 등 총 2000만원을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롯데월드와 소아암 어린이들의 인연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7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첫 번째 ‘찾아가는 테마파크’ 공연을 진행했고, 이후 매년 분기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재까지 총 107회의 공연을 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시작한 ‘드림 Stage’ 활동도 3년째 하고 있다. 작년에는 소아암 어린이들과 롯데월드 샤프트 봉사단이 함께 참여한 창작곡 ‘눈꽃길’과 ‘Oh Happy Day!’가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고, 12월 15일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든 스테이지에서 ‘드림 Stage: 언사들의 합창 시즌3’ 공연을 진행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강원랜드 희망재단, ‘정·태·영·삼 맛캐다’ 12호점 오픈

강원랜드희망재단(이사장 고광필, 이하 재단)의 ‘정·태·영·삼 맛캐다!’ 프로젝트 12호점 ‘꼬들구이(사진)’가 9일 오전 11시, 정선군 고한시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영업을 시작했다.

‘정·태·영·삼 맛캐다!’는 폐광지역 영세식당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마을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생생 프로젝트다. 2017년 1호점 ‘포넌가츠650’을 시작으로 이번에 12호점이 문을 열었다. ‘꼬들구이’ 점주 박종욱(여, 64세)씨는 약 한 달간 강원랜드 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조리부터 서비스, 회계, 위생 등의 교육을 받아 돼지 특수부위 전문점인 ‘꼬

들구이’로 재개장했다. 강원랜드희망재단은 12호점 ‘꼬들구이’를 마지막으로 2019년 선정한 4곳의 종합지원식당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2월부터 2020년도 사업 참여 식당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